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 X II.

혼자있는 공간이 주님의 임재로 가득해야 하는 이유

1.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의 속성

[창세기 1:26-28]

26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1) 하나님의 속성 - '에하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기록한다.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한다. 그리고 속성 그대로가 사람을 만드는데 반영된다. 하나님의 속성 중 가장 중요한 속성이라 말할 수 있겠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나 한 분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가 되시는 물리적 '하나'의 개념이 아니다. '존재적 한 분'이라는 개념이다. 존재적 '하나'를 설명하는데 가장 이해가 쉬운 것이 가족의 개념이다. 물리적, 생물학적으로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다르다. 그러나 그들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존재적 하나를 이루고 있다. 이런 존재적 '하나'의 개념이 바로 '에하드'이다.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 속성은 '에하드'의 존재적 개념안에 있다.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은 에하드의 속성대로 '함께함'으로 하나를 이루고 계신다. '함께함'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반영된 존재가 '인간'이다.

(2) 인간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다. '형상'이란 무엇인가? 어떤 물체를 그대로 비추고 있는 상태이다. 하나님의 지으신 인간의 형상이란 단순히 보여지는 것만 비추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비추어진 상태를 말한다. 즉, 인간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 되었다는 것이다. 그럼자가 홀로 비추어질 수 있겠는가? 같은 원리이다. 사물과 그를 비추는 그림자는 항상 함께한다. 그림자의 존재는 원형상이 된다.

속사람의 그림자가 분명해야 겉사람의 모습이 형상으로 비추어지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속사람'의 변화를 말하고, 그것이 겉사람에 나타나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보여지는 겉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속사람에 변화가 없는 껍데기만 있는 신앙일 뿐이다. 겉은 멀쩡해 보일 수 있지만, 열매를 보고 나무의 진짜 속성과 상태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것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도 '함께함'이 없으면, 생명 자체가 지속될 수 없음을 말한다. 남자와 여자는 생물학적으로 다르지만, 둘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떤 생명도 창조되지 않는다. 각자의 능력이 아무리 출중해도 소용이 없다. 함께함만이 생명을 만들 수 있다.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다.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것이다. 아담은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 이라고 고백한다. 생물학적 속성은 완전히 다르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속성이 반영된 원 인간의 속성은 존재자체가 '함께'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이다.

(3)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인간

[창세기 2:7]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본질은 보여지는 육체에 있지 않다. 보여지는 육과 혼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야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을 뜻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인간'의 본질적 속성이다. 따라서 신앙이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상의 원 속성이 회복되는 것이다. 죄인 된 인간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지옥 갈 사람이 천국을 가게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형상의 회복을 말한다. 이렇게 될 때 인간의 삶 안에 '통치'가 풀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인간에게 창세기 1:28절 땅의 통치의 권세를 주셨다.

즉,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땅의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이다.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가치를 대신할 것이 없다. 인간은 이 땅의 모든 것 위에 존재하는 가치라는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다.

(4) 가치와 인간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 이 세상은 '가치'로 모든 등급이 매겨져 있다. 신앙은 구체적으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 삶에 정렬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첫째, 먼저' 라는 개념을 중요시 한다. 이런 삶에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있다.

자유는 어떤 속박과 묶임도 없는 상태를 말한다. 나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우선순위로 여기는 가치는 무엇인가?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결국 흔들리게 된다.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깨어나기 때문에, 육과 혼의 눈, 코, 입이 변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눈으로, 다른 귀로, 다른 입으로 말하게 된다. 이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리스도인의 삶' 이다.

2. 독처하는 공간을 경작하라.

(1) 독처하는 공간

[창세기 2:18]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본성은 '독처하는 자'가 아니다. 독처하는 인간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 이런 인간의 본성을 정확히 알고 공격한 사탄의 공격시점을 보라. 바로 하와가 홀로 있을 때 사탄은 하와를 유혹했다. 그리고 유혹의 내용도 분명하다. "하나님 없이 너 혼자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탄의 공격의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이다. 함께함이 아니라 '분리'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분리란, 단순히 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거절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세계 자체를 거절하는 것이다. 원점 자체가 틀렸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이런 사탄의 미혹의 포인트에 언제나 쉽게 노출되어 있는 시대이다. 분리의 끝은 자신만이 옳다고 여기는 '이기주의'에 있다. 이기주의란 주의를 살피지 않는 태도이다. 나만 좋으면 된다는 마음이다. 더 구체적으로, 모든 세상은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개념이다. 그래서 내 뜻과 방해되는 모든 것이 싫은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진 자신만을 생각하는 시대이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그 이기심이 만든 독처하는 공간에서 사탄에게 미혹을 당한다.

(2) 홀로 있는 공간을 경작하라.

가장 완벽한 존재였던 에덴동산의 인간이 사탄에게 노출되었던 첫 공격 포인트는 '홀로 있는 공간' 이다. 사탄은 홀로 있는 공간에서 인간을 이겨본 엄청난 승리의식이 있다.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인간이 스스로가 홀로 있다고 느끼는 그 순간을 공격한다. 생각과 감정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부재가 된 그 순간을 기다렸다가 공격한다.

신앙이란, 내가 있는 실제적인 홀로 있는 공간(영적인 공간-생각,마음 / 물리적인 공간)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는 것이다.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도록 해야한다.

(3)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삶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안에 충만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무엇보다 사모해야 한다. 예수님은 특별히 홀로 있는 공간을 완벽히 이기셨다. 그는 광야의 홀로 있는 그곳에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다. 그리고 사역 가운데 홀로 있는 한적한 곳을 찾아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계셨다.

(4) 광야로 나아가라

마지막 때는 나와 하나님만이 더 깊은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광야로 나아가야 한다. 세상의 모든 가치가 헛됨을 아는 그 마음의 광야가 내 속사람이 거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공급과 도우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실체가 되도록 분명히 해야한다.

마지막 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세상 가운데 울려 퍼져야 한다. 세례요한처럼 광야에서 홀로 독처하는 그 공간에서, 그는 누구보다 강력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의 임재에 충만한 자들이 모여, 함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코이노니아'이다. 건강한 개인 영성이 없이는 건강한 공동체 영성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오늘날 한국교회의 집단적 영성의 타락은 건강한 개인 영성의 무너짐에 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밀한 공간을 경작하는 일의 실패에 있다. 임재가 없는 신앙이 바로 종교적 신앙이다. 보여지는 신앙이 바리새인의 종교적 신앙이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홀로 있는 공간을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하라.